

SBI저축은행 김아림·이소미·박수빈 프로의
KLPGA 2020 시즌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소미 프로

김아림 프로

박수빈 프로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Summer 2020 Vol.26





표지모델_ IT운영부 김현호 과장.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제대로된 외출 한 번 못한 가족들에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 신청한 김현호 과장. 표지 모델인 그가 '몸으로만' 공중에 붓~ 떠 본 첫 SBI인이 아닐까요? 김현호 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일상에서 간만에 가족 모두가 즐거웠던 하루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Summer 2020 Vol.26

발행일_ 2020년 7월 3일

발행인_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_ SBI저축은행 홍보부

담당_ 유형근 주임(02-3416-4210)

주소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_디자인_ 디스토리

웹진_ 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697(2020.06.30.H)

Summer 2020 Vol.26

CONTENTS

Life+

04 SBI 체험현장
김현호 과장 가족의 '실내 스카이다이빙' 도전

10 부서 탐방
여신지원부

14 인생 레시피
철공소와 예술의 만남! 문래창작촌

20 SBI pick's
추억의 오락실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News+

22 세상읽기
동료와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

26 SBI 포커스
SBI 뉴트로뱅크 1호점, 노원지점

30 New Face
정보시스템실 오병진 이사 외 4명

32 SBI 희망뉴스
2020년 2분기 주요소식

34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코로나19로 점점 쌓여가는 우리 가족 스트레스. 아빠인 김현호 과장의 최근 고민거리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나들이 가는 '즐거움'이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이번 SBI 체험현장이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이네! 그래 바로 이거야!' 용인에 위치한 FlyStation은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을 실내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시설입니다. 강한 바람에 몸을 실어 공중을 나르거나 거꾸로 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360Km 강한 바람의 윈드터널 속 '플라이'에 SBI 김현호 과장 가족이 도전했습니다.



아들 김지환(초5)

윤교가 들려주는 '스카이다이빙' 체험기
아빠도 멋지지만
엄마가 더 잘했어요

소감 · 김윤교(IT운영부 김현호 과장 딸, 초2) | 정리 · 사보 편집팀



아빠 김현호 과장



엄마 문상화 님

“우리 가족은 아빠가 회사에 신청한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하러 아빠 차 타고 왔어요. 에버랜드 근처 같은데... 엄마가 안그래도 점심 먹고 나면 에버랜드도 간다고 해요. 헤~ 신난다.”

주차하고 2층으로 올라오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원통이에요. 아빠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적고 나니깐 옷갈아 입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헬멧이랑 고글에 슈트까지 갈아입으니 짜잔! 우리 가족 무슨 ‘히어로’ 같아요.

안전교육 시간에는 짧은 동영상을 본 뒤에 ‘플라이’를 함께 해줄 코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윈드터널 통 안에 들어가면 바람소리가 엄청 세데요. 입 벌리기도 힘들고 귀마개까지 하니깐 수신호를 배워야 해요. 코치님께 팔과 다리를 펴고 자세 잡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브이하면, 사진 찍는다고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펴라는 거예요” 코치님 말씀에 모두들 웃었는데 저만 웃지 못했어요. 3주 전에 아빠 말 듣고 기대는 많이 했는데 막상 와 보니 조금 무서워졌어요.



윈드터널 앞에 대기하는데 “누가 먼저 할까?” 아빠가 물었어요. 모두 주저하니깐 아빠가 먼저 성큼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는 건 바람을 배로 타는 ‘밸리’라는 자세예요. 아빤 한 바퀴 돌더니 우리 보고 손까지 흔들며 보이세요. 왓~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10미터 높이까지 한 번에 주욱 올라가는 ‘하이 플라이’이예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아냐, 윤교야, 코치님이 잡아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음엔 오빠가 섰어요. 오빠 싱글빙글이예요. 엄마가 저보고 담에 하래요. “음... 엄마부터 해요” 체험시간이 짧아서 금방금방 차례가 왔어요. 심장이 쿵당쿵당. 제 차례예요. 억지로 손잡이를 잡고 섰는데 코치님이 손을 잡아 주셨어요. 으으으... 바람이 정말 세요. 못하겠어요. 코치님이 금방 눈치채고 절 밖으로 내려 주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저 대신 오빠가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은 2분, 4분 코스가 있어요. 짧은 순간에 온몸의 긴장감을 주는 터라 힘이 많이 들어가요. 몇 초도 안되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체험이 끝나자 코치님의 플라잉 시범이 있었어요. 와! 윈드터널을 거꾸로 서기도, 봉봉 날기도 하고, 통 안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녀요. 바람 때문에 얼굴이 아파하지 못했어요. 좀 더 크면 꼭 다시 도전해 볼래요.



체험장소: 용인 FlyStation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피겨스케이팅과 같이 연기를 펼치는 프리스타일, 2~4인이 한 팀이 되어 춤을 추듯 플라잉을 겨루는 다이내믹 2/4 웨이 등 여러 가지 종목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제항공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용인 플라이스테이션에서 지난 6.13 FSK 2020 SPRING CUP 국내 대회가 열렸습니다.

· 체험문의 : 1855-3946



은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탄탄한 영업 기반과 여신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에 몰리면서 관련 대출이 증가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신 건전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SBI저축은행의 여신상품 운영을 지원하는 ‘여신지원부’에는 어떤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을까.

SBI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 여신지원부가 함께합니다

여신지원부



여신 자산의 확대 위해 ‘총력’

여신지원부는 지점 여신 상품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제휴채널 발굴 및 관리, 신상품 개발 및 운영 등과 함께 지점 여신 정책 방향 수립, 손익 관리, 지점 평가 관리 등을 담당한다.

“SBI저축은행이 사람이라면, 여신지원부는 혈관 같은 부서입니다.” 여신지원부를 이끌고 있는 김덕현 부장은 “자체 전략 수립 역할 외에도, 대내외 유관 부서와 지점의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 20개 지점이 하나의 유기체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점에서의 모든 여신 관련 업무활동을 SBI저축은행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여신지원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덕현 부장을 비롯한 총 10명의 직원들은 SBI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수익 향상 방법을 고민하고, 2020년 여신 자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오늘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alk! Talk!
우리 부서 식구를 소개합니다.



큰아빠 김덕현 부장

언제나 든든한 아빠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여신지원부 김덕현 부장입니다. 부서원들 모두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신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며 SBI 최고의 부서로 거듭나도록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산콜센터 김병선 과장

여신지원부 '다산콜센터' 담당! 사내에서는 지점 여신 관련 문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여신지원부의 골반, 가정에서는 두 아들과 아내의 애로사항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햇살같은 여자 김정민 대리

여신지원부 햇살 같은 여자 김정민 대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언제나 '햇살론'처럼 따뜻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직설적이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속마음은 한없이 여러답니다.

불꽃 카리스마 최인호 차장

여신지원부 '불꽃 카리스마' 담당 최인호 차장입니다. 장난끼가 많아 주위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지만, 업무를 할 때는 장난기 없이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이끌어가는 능력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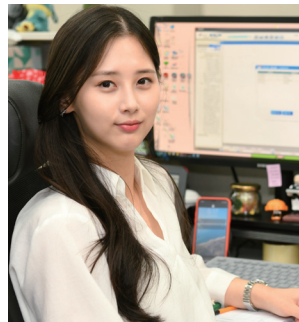
왕언니 박용례 과장

여신지원부의 '왕언니' 박용례 과장입니다. 부서를 옮긴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마케팅 외 주택담보대출과 햇살론 업무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빠르게 습득해 만언니로서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마성의 매력남 김태림 사원

여신지원부에 없으면 안될 존재! 모두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김태림 사원입니다. 저의 매력이 풍당 빠져보실래요?



분위기 메이커 박혜미 사원

웃음이 많아 여신지원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도 좋지만, 활기찬 사무실이 더 좋잖아요? 동료들에게 관심이 많아 항상 질문과 호기심이 넘치는 귀여운 박사원입니다.



꽃뿔한 새내기 남가은 사원

이제 막 20살이 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막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린보이 박기영 과장

운동을 좋아하는 마린보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 운동을 매우 좋아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눈에 띄는 이훈 대리

저 멀리서도 눈에 띄는 훈훈한 이훈 대리입니다. 부서원들이 머리가 크다고 놀리지만 머리 안에는 많은 업무 지식이 빼곡히 들어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쇳덩이와 용접 불꽃, 기계음 가득한 문래동 철공소 골목이 예술가들을 품으면서 도심 속 이색 마을로 각광받고 있다. 철공소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공존하며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래창작촌'으로 떠나보자.

철공소와 예술의 만남! 문래창작촌

연승철강(주)
각관-칼라-아연-파이프 전문
T.2633-8505 F.2633-8506

용접냄새와 기계음 가득한 철공소 골목, '철'을 활용한 다양하고 독특한 조형물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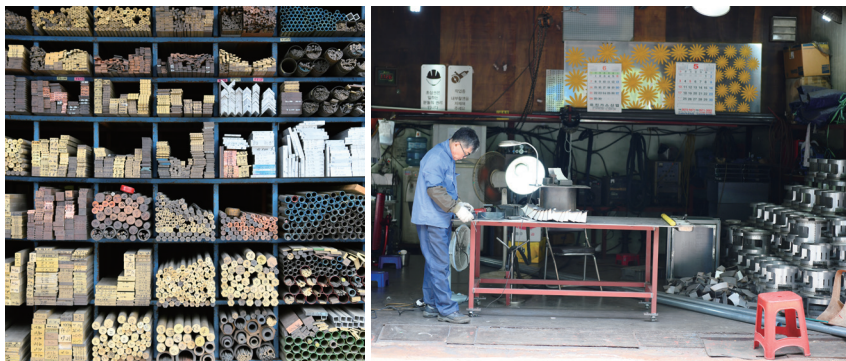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철공소 골목의 변신

서울 영등포구 문래 3가 일대는 1970~1980년대에 경제발전과 함께 잘나가는 철공소 거리였다. 이후 철강 산업의 쇠퇴, 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들어 공장 이전 정책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떠나면서 빈 공간이 생기자 그 자리에 예술가들이 등지를 틀기 시작했다. 홍대와 대학로 등지에서 활동하던 젊은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철공소 거리 골목골목에 작업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바로 '문래창작촌'이다.

문래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만날 수 있는 '문래창작촌'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철공소들과 좁은 골목 곳곳에 공방과 카페, 식당 등이 어우러져 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무채색 철근들과 거친 기계음 사이로 알록달록한 벽화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공방, 카페들이 모여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여러 카페와 식당 등이 문래동의 상징인 '철'을 활용해 옛 감성을 살리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뽐내고 있는 것이 꽤 인상적이다. 곳곳에는 용접용 마스크와 망치 모형, 철재로 만든 독특한 조형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문래창작촌에는 회화, 설치, 조각,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서예, 패션, 영화, 거리 퍼포먼스, 음악, 전통예술, 문화기획 등 1백여 곳의 작업실과 3백여 명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작업은 물론, 정규 수업과 일일클래스 등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일일클래스의 경우 친구-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은 벽에 그려진 개성만점 알록달록한 벽화들.





문래창작촌 문화투어 '올래?문래!'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창작촌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영등포구와 문화예술 단체 보노보C에서 진행하는 문화투어 '올래?문래!' 프로그램을 신청해보자. 고층빌딩 숲에 둘러싸인 70~80년대 낮은 철공소 골목을 걸으며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영등포의 옛이야기를 듣고, 동네작가에게 문래창작촌의 형성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철공소 장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골목길 곳곳의 벽화와 설치 작품을 찾아보고,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여행이 될 것이다.

*일시: 3월~11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인원: 15명 (선착순모집)

*비용: 10,000원 (지도, 해설비, 전시공간 입장료 등)

*일정: 15:00 집결->투어 안내 및 안내자 소개->역사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영등포 역사 이야기->문래 창작촌 투어 및 전시 관람 (투어 세부 일정,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 보노보C 02-2637-3313 / chamisl75@hanmail.net /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02-2670-3131

철공소와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은 문래창작촌만의 매력!



나무늘보 나무공방

'나무늘보 나무공방'은 이름 그대로 나무를 소재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나무공방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목공을 접한 사장님이 목공의 매력에 빠져 아예 전업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 가구 수업, 더빙클래스를 진행 중인데,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캠프나무, 도마, 무동력 스피커, 나무 반지 등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정규 가구 수업에서는 가구 만드는 방법과 목공기계를 다루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더빙클래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구에 대해 상담을 통해 디자인과 재료 등을 결정 후 직접 만들 수 있다.

-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길 6
- 전화: 010-2956-0754
- 영업시간: 매일 12:00~18:00(전화예약 필수)
- 클래스 예약: 전화 예약 가능



문래방구

'문래방구'는 카페 겸 복합문화공간이다. 가족공예를 전공한 젊은 사장님이 반겨주는 문래방구는 카페 운영과 함께 가족 공예 클래스, 미술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 내에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가족 공예 제품들과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소품들을 판매하며, 카페 안쪽에서는 미술 클래스가, 같은 건물 위층에서는 가족 공예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 지갑이나 여권 지갑 등을 만들 수 있는 가족 공예 원데이 클래스, 가족에 그림을 그리는 마카주 클래스, 취미 미술을 위한 정규 미술 클래스 등이 운영된다.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63
- 전화: 02-2633-9204
- 영업시간: 평일 11:00~20:00 / 토요일 12:00~21:00 / 일요일 12:00~18:00 / 화요일 휴무
- 클래스 예약: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예약 가능



추억의 오락실 게임 승리가 나를 부른다! "스트리트 파이터"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 지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거리로 게임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의 '오락실 게임'은 어떨까요? 엄마 '등짝 스매싱'에도 무뎠던 오락실,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스트리트 파이터는 게임계의 명작이다. 1987년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게임에서 출발해 만화, 애니메이션, 각종 팬시 제품까지 심지어 실사판 극장 영화까지 개봉했다. 1994년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의 주인공은 인기 액션 배우 장 끌로드 반담이었다. 게임에 등장했던 캐릭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 TV 예능방송에서 한 모델이 '달심'으로 분장하기도 했다. 스트리트 파이터에는 류, 켄, 가일, 춘리, 달심, 장기에프, 혼다 등 각국의 용사들이 등장한다. 오락기에 동전만 넣으면 우린 거리의 파이터가 될 수 있었다. 스트리트 파이터 전후로 오락실 공기가 달라졌다. 오락실은 나와 게임기와의 싸움터다. 물론 2인용이 있다. '1942'와 '뽀글뽀글'은 친구와 함께 적을 무찌르고, 각자 사이좋게 점수를 나눠 갖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전이다. 우리 동네 '갤러그' 점수 1등이자 각종 도구를 이용했던 친구가 생각난다. 녀석이 갖고 다닌 15센티 무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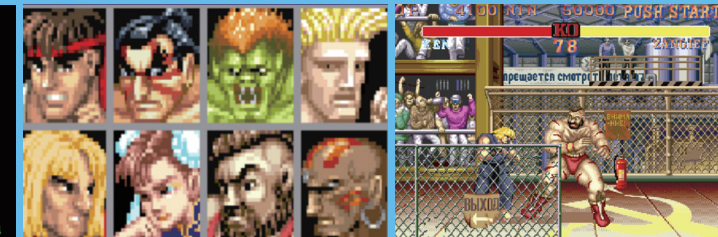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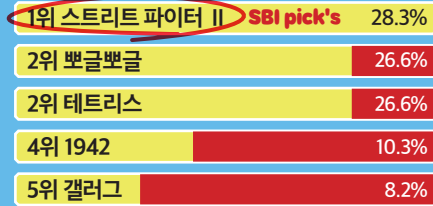
는 1초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오락실에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화면을 따라 내려오는 적과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기 위해 화면 속에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 엄마의 등장도 보질 못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락기 건넌편 사람을 힐긋거리게 되었다. 게임기가 아닌 사람과의 대전을 주선한 스트리트 파이터의 등장 때문이다. 어느 오락실 사장님이 2대의 게임기를 마주보고 붙여 놓았다. '파이터'들의 니즈를 어찌 아셨는지 이 구조는 오락실 인테리어의 표준모델이 된다. 나의 승리는 상대방의 동전 개수를 줄게 만든다. 오락실 주인도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했다. 선수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구경꾼도 바글바글했다. 어색한 장면도 자주 연출되었다. 한 참을 쥐어터지고,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니 건넌편은 초등학생이다. 화가 머쓱함으로 사라진다. 한 판 승리의 쾌감을 "어류 겐!"으로 외치던 최애 게임이다.

스트리트 파이터 II (Street Fighter II: The World Warrior, 1991)

1987년 발매한 스트리트 파이터 후속작
제작사 : CAPCOM
캐릭터 : 켄, 류, 혼다, 블랑카, 가일, 춘리, 장기에프, 달심
<출처 : CAPCOM>

SBI 한줄평

- 동네형을 계속 이겨서 실제로 워류겐을 맞아봤던 추억의 게임
윤진원 과장 | 리테일마케팅부
 - 아무거나 막 흔들고 놀러서 동네 남자아이들 무릎 꿇게 한 게임
공부름 주임 | 삼성지점
 - 1992년, 캔과 류로 끝판대장을 쳐부수고 오락실을 평정했던 게임
서희영 대리 | 채널3부
 - 구석으로 몰고 약발약발 잡아던지기, 약발약발 잡아던지기.
GAME OVER.
허민호 과장 | HR지원부
 - 어렸을 적 꿈이 춘리였을때가 있었지
우리에 사원 | 강남지점
- ※ 한줄평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형 레트로 게임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동료와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회사도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상하관계와 더불어 수많은 고객까지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직장생활에 심리학적 사고를 곁들이면 일터가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상대를 알아가는 첫번째 방법은 대화입니다. 동료와 부드럽게 대화하는 법, 그와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알아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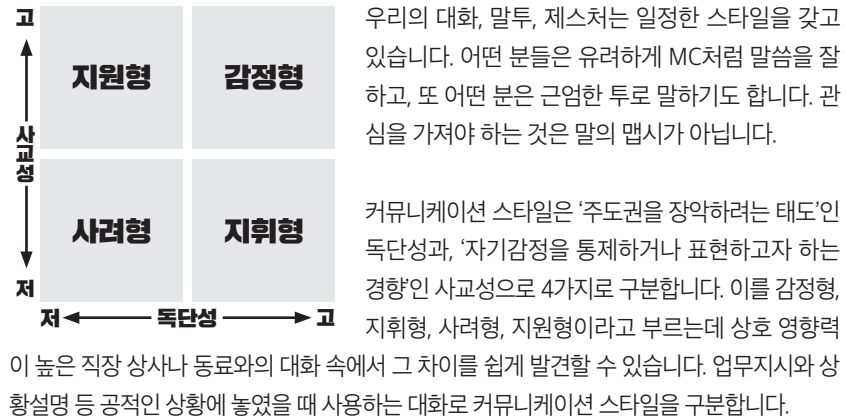
일로 만난 사람과는 찌소통으로

최근 어느 기업이나 중요한 화두는 회사 내의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정말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잘 소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지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메일, 메신저, 스마트폰 문자, SNS 등 넘쳐나는 소통수단에 어떨 땐 머리가 지끈할 정도입니다. 의사소통 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소통의 핵심이 대화 양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지 정보전달에 치우치지 않고, '공유'와 '공감'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진짜 소통' 시체말로 '찌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누가 말하는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직장생활이란 어떨 땐 전혀 맞지 않은 사람과도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맞는 사람만 골라서 일할 수는 없겠지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의외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컷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나의 의도가 전혀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의사전달의 오류는 스트레스는 물론 오해와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로 만난 사람과는 무조건 '원활한 대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동료와 상사를 '내 편'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달라요



감정형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열광적이며 활기를 띠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입니다. 말이 빠르고, 활발한 손 제스처를 사용하며 자기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거나, 첫 대면에서도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비격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대화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지휘형은 독단성이 높고 사교성이 낮은 유형으로 솔직하고, 강요적이며, 단정적이며 또한 매우 단호합니다. 약간 군대 스타일 같습니다. 지휘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진 분은 진지한 태도로 인해 사무적이고 재미없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사려형은 독단성과 사교성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조용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며,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신중한 태도로 의견을 제시하며 서두르지 않고, 감정통제를 잘합니다. 침착하고 일에 몰두하며 초연한 면도 있어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정돈된 작업 환경을 좋아하고 회의 시 안건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하여 천천히 결정을 내립니다.

지원형은 독단성은 낮고 사교성이 높은 유형으로 민감하고 참을성 많으며, 훌륭한 경청자입니다. 말수가 적고 주목받는 행동을 보통 피하는 편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한 뒤 표현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본인 의견의 표시가 잘 나질 않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끼리 어울릴까?

개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어떤 유형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각 스타일마다 차별화된 장단점이 있는데, 맞지 않는 스타일끼리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무시하고 대화를 지속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진 팀장이 '지원형' 팀원에게 한참을 열정적으로 말하고, 팀원은 참을성 있게 듣고만 있다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에 팀장은 '팀원들이 듣는 척만 하는 거 같아'라고 생각하고, 팀원은 '회의 중에 자기 이야기만 너무 하는 거 아냐?'라고 느낀다면 회의는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이 쌓이는 대화로 남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동료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이 생기고 대화 자체가 단절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료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어떤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스스로 "나는 지원형이야"식으로 단정 짓지 말고 주변인에게 물어보아야 객관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문화 쇠퇴와 더불어 모든 조직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대한 호칭도 없애고, 어떤 스타트업 회사는 팀, 존, 제시가 등 영어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까지 대화의 방법을 바꾸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도 창의력과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호칭만 바꾼다고 대화가 더 편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하 관계로 구성된 회사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내리는 위치와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그럴 때 대화가 불편하다면 무엇보다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누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주로 말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신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춘당? 카페야? 저축은행이야?

SBI 뉴트로뱅크

‘지루하기만 한 대기시간에 색다른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하는 곳’ 이미 몇 번 SBI저축은행 노원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금새 청춘당에 적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카페인줄 알고, 앉았다가 멧적게 일어서는 분도 많습니다. ‘청춘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그냥 계셔도 되는데... ‘청춘당’은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뉴트로’ 콘셉트의 고객 쉼터 공간입니다. 옛 다방을 연상케 하는 소파와 테이블 등 SBI 노원지점 청춘당은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벌써부터 인기랍니다.



뉴트로뱅크 1호점, 노원지점

SBI저축은행은 ‘뉴트로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5월 노원지점을 뉴트로뱅크로 첫 단장을 마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객 대기 공간입니다. 젊은 고객에게는 호기심을 나이 든 고객에게는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청춘당’이 들어섰습니다. 청춘당은 90년대애나 봄직한 ‘다방’ 스타일입니다. 고객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와~ 여기가 은행이에요? 아무나 앉아도 돼요?”

“그럼요, 고객님. 언제든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청춘당은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영화도 볼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제든 쉬어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금융사랑방’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뉴트로뱅크의 ‘현실판’ 노원지점을 소개합니다.

노원지점 청춘당에 놀러 오세요!

Q 고객들의 첫 반응은 어떤가요?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우선 칭찬하고요. 고객 대기하는 곳이 청춘당으로 변해서 여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세요.”

Q 새롭게 변한 뉴트로뱅크의 임직원들 반응은?

“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편의시설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직원 공간을 쾌적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 온돌, 소파와 테이블을 늘렸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서 고객서비스도 좋아지도록...”

Q 고객들이 청춘당에서 어떤 것을 느끼길 바라시는지요?

“나이 든 고객들은 청춘당을 통해서 친구와의 우정이 떠오르고, 선후배와 나눴던 인생상담, 배우자를 만난 첫만남의 떨림을 추억하길 바랍니다. 젊은 고객들은 이런 옛 감성을 통해 부모님 세대를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이장환 노원 지점장



뉴트로(New-tro) 뱅크를 자세히 알아 볼까요?

뉴트로(New-tro)는 새로움과 복고의 신조어로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외향과 기능을 갖춘 '전에 없던 복고'를 의미합니다. 현재 세대는 복고에 가치를 부여하고, 과거 세대를 공감하는 것이 뉴트로의 핵심입니다. 또한 뉴트로의 물질보다는 감성에,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최신 Trend입니다.

뉴트로의 SBI저축은행이 찾던 낯선 '과거'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찾는 브랜드 컨셉과 맞닿아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이 담고자 하는 뉴트로뱅크란 현재 세대와 과거 세대를 잇는 은행입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어려워 하는 금융취약 고객들에 대한 고민도 담고 있습니다.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은 보통 50~6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라 모든 은행이 지점을 축소하고 있어, 고령자와 같은 금융취약 고객들이 곤란함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점을 없애기 보다 '뉴트로' 컨셉으로 고객 편의도 제공하며, 잠재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BI저축은행은 뉴트로뱅크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소외자가 없는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뱅킹 환경에 어려운 50~60대 고객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친근한 저축은행이 바로 SBI의 뉴트로뱅크입니다.

왜? 이곳을 청춘당이라고 지었을까요? 청춘당의 입구에 서면 딱! 정감 어린 '다방'이 생각납니다. 청춘당은 급하고 빠르게만 움직이는 금융서비스 속에서, 고객들이 '느긋함'을 느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때문에 SBI저축은행에 방문했다라도 '다방에서 친구와 차 한 잔을 하듯이' 여유를 갖길 소원합니다.

SBI저축은행은 청춘당뿐만 아니라 통장도 '복고' 컨셉으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의 '뉴트로통장'은 고객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아주 쉬운 통장이며,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레트로 감성의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SBI 노원지점은 다방인 청춘당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관리 교육, 추억상영관 및 전시, 취미생활 공유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로 SBI 내방 고객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첨단 금융을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저축은행. SBI가 만들어 갈 뉴트로뱅크의 모습입니다.

뉴트로통장

SBI저축은행 뉴트로통장은 입출금, 정금적금, 예금적금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신규 발급 외에도 기존 통장을 뉴트로통장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www.sbbk.co.kr SBI 저축은행</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www.sbbk.co.kr SBI 저축은행</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www.sbbk.co.kr SBI 저축은행</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www.sbbk.co.kr 1566-2210</p>

아스팔트도 녹일 열정의 6인방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생기 넘치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스팔트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는 태양이 아니라 SBI저축은행 가족이 된 6명의 열정 탓일 것입니다. 이 여름 그들을 만나볼까요?



김남호 대리 | 리테일영업1부

1. “대출 마케팅”, “대출 광고” 키워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도전왕, 적응갑, 매너남
3. 적을 만들지 말자
4. 주로 음악감상을 합니다. 힙하고 트렌디한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전환을 합니다.
5.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 전반에 조연해 준 김영민 대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병진 이사 | 정보시스템실

1. 우리가 1등 저축은행인 것처럼 정보시스템도 1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 다포기 : 다정한 사람, 포근한 사람, 기대고싶은 사람.
3. 나를 표현해라!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는다.
4. 골프, 라운딩 하는 동안 잡념이 없으니까...
5. Soft landing하게 도와주시는 장동록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도연 대리 | SI1부

1. SBI저축은행에 ‘절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2. 의리, 에너지, 호탕
3.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얻는 즐거움을 느끼자.
4. 산책을 즐깁니다. 사람과 풍경을 보면서 무작정 걷다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5. 저와 일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전합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SBI저축은행 입사 후 가장 이루고 싶은 성과와 목표는?
2. ‘나’를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
3. 직장생활 하면서 배운(터득한) 교훈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4. 평소 즐기는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
5. SBI저축은행 입사 후에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새 동료’에게 칭찬 한마디



원소미 주임 | IB3부

1. 일 잘하는 IB부서원이 되고 싶습니다.
2. 성실함, 꼼꼼함, 긍정적
3. 다시 안볼 사람은 없으므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4. 등산, 마라톤,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5. IB3부 부서분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던 부서원처럼 어색함 없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승희 과장 | 부동산금융2부

1. 2년 내 부서 당기순이의 흑자전환, SBI인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2. 삐에로, 교회오빠, 천상 은행원
3. 언제, 어디서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자.
4. 유튜브 시청과 여행 다니는 것,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5. 누구를 꼽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박창준 과장 | 부동산여신심사부

1. SBI저축은행에서 “리스크분석왕”이 되는 것
2. 딸바보, 인간소나무, 미드왕
3. 한결같이 성실하라. 성장해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4. 아이와 함께 산책. 종알종알 떠드는 아이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의욕이 샘솟습니다.
5. 팀 적응할 때, 바쁜 업무 중에도 깨알 같은 팁을 준 이길용 과장님 고맙습니다.



<SBI 희망저축 프로젝트 캄보디아 편> 업계 최초 '제28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수상

SBI저축은행의 사회공헌 캠페인 <SBI 희망저축 프로젝트 캄보디아 편>이 지난 5월 28일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하는 '제28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다. <SBI 희망저축 프로젝트>는 전 세계 소외아동들을 돕기 위해 출범한 봉사단체인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의 취지와 활동을 소개한 '사회공헌 광고 캠페인'이다.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캄보디아 편'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놈펜, 뿌라이웁 지역 마을과 학교를 방문해 펼친 SBI 글로벌 원정대의 봉사활동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등·하교시 자전거가 필요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기부한 '어느 자전거의 새 출발'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SBI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의 현지 사정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 창의성, 대중성, 공익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SBI중금리 신규 광고 캠페인 <선택 받고 있다> 론칭!



2018년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기준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중금리 상품'을 널리 알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고 캠페인 <선택 받고 있다>를 론칭했다.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상품'임을 강조하며, SBI 이니셜을 통해 'S(선택), B(받고), I(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SBI 중금리 상품 광고 <선택 받고 있다>. 이번 광고는 영화 '라이언 킹'을 모티브로 '동물의 왕' 사자가 중금리 상품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티브로 소비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선다. 사자 목소리에는 라이언 킹 무사파 역의 성우 이광수 씨가 연기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신규 광고캠페인을 통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저축은행 업계 최초 네이버페이 서비스 오픈



SBI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네이버페이'와 전자금융결제 제휴를 맺고 간편송금, 간편결제, 즉시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페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SBI저축은행 고객은 네이버페이에서 <사이다뱅크> 계좌를 등록하면 모든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출범한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와 같은 대형 간편결제사업자와 제휴를 맺게 되었으며, CJ Mall, 여기어때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계좌를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 간편결제 이용 건수는 2만건, 이용금액은 2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혜택의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다음 호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과 <SBI pick's>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세요.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고 참여하신 분께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 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편집후기

여름이 덜컥 찾아왔습니다.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온 더위라 그런지 더욱 덥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 더위는 '역대급'이라고 하네요. 평년보다 잦은 폭염과 열대야로 아주 핫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여름'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출근길 뽀뽀는 지하철에서 서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암묵적인 눈빛, 점심 식사하러 가다가 등에 땀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릴 때의 소름, 회사 에어컨이 시원찮을 때 밀려오는 분노 등.

이렇게 오지 않길 바라는 여름에도 직장인의 가장 큰 낙(樂) '여름휴가'만큼은 늘 기다려집니다. 일 년에 딱 한번, 일주일동안의 해외여행을 즐길 때면 '내가 이 날을 위해 돈 버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죠. 하지만 올해 휴가는 성가신 바이러스가 그 낙마저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름휴가 컨셉을 '삼시세끼'로 잡았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오로지 먹고 자고 쉬기만 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낚시도 하고, 직접 요리도 하고, 마당에서 시원하게 등목도 하는 진짜 레트로한 삶을 경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상상은 해보셨나요? 유튜브, 넷플릭스, 배달의민족, 인스타그램이 없는 삶을. 어쩌면 앞으로도 평생 경험하기 힘든 일주일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름휴가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방식의 휴가이든 그 시간이 2020년,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지난 호 다른 그림찾기 정답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8월 20일(목)까지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